



‘왕의 남자’ 패러디 사진출처 | 인터넷 캡처

‘야왕’ ‘세종대화’...한대화감독 ‘애칭별곡’

(야구의 왕)

‘야왕의 남자’ 등 패러디 붐물
‘야왕과 함께’ 응원가도 등장

이제 2년차 감독이다. 부임 첫째 꼴찌를 했다. 올시즌에도 5월20일까지 꼴찌였다가 겨우 7위로 올라왔다. 이런 한대화 감독에게 야구팬들은 ‘야왕(야구의 왕)’이라는 애칭을 붙여줬다. 디시인사이드에서 처음 탄생한 것으로 알려진 ‘야왕’이라는 용어는 온라인 포

털 사이트를 휩쓸고, 오프라인 미디어로까지 확장됐다.

한화가 5월18일~21일 4연승을 해내고, 24일 1위 SK에 3-2, 9회말 끝내기 승리를 거두자 ‘야왕’은 자가 번식을 시작했다. ‘야왕(야구의 황제)’, ‘세종대화’라는 칭송이 나왔고, 9회말 무사 1루에서 도루 성공을 두고는 ‘야왕의 한수’, 끝내기 안타를 친 강동우를 3번 불렀다는 인터뷰를 두고는 ‘야왕의 삼고초려’라고 패러디했다.

한화가 꺾은 팀이 ‘아신’ 김성근 감독의 SK였고, 6전 전패 후 첫 승이었기에 왕권과 신권의 권력다툼에 비유해 ‘카노사의 굴욕은 가고 아비뇽의 유수가 시작됐다’는 고난이도 세계사 용어가 등장했다. 나폴레옹 얼굴에 합성된 대관식 사진은 화통점정이다. ‘남과 함께’를 개사한 ‘야왕과 함께’가 응원가로 나왔고 ‘왕의 남자’를 패러디해 ‘야왕의 남자’로 김혁민과 안승민을 세워놨다. 심지어 ‘야왕실록’마저 출현했다.

양상문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이를 두고 “결코 놀림이나 비아냥이 아닌 애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잘해달라는 기대치가 들어있다”고 평했다.

물론 ‘야왕’ 브랜드를 어떻게 가꾸느냐는 한화의 성적에 달려있다. 그러나 ‘한화를 보면 타팀 팬으로서 좀 짝하다. 프로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한화는 일단 악착같이 하려고 드는 게 참 보기 좋다’라고 쓴 인터넷 글은 ‘야왕’이 거부감 없이 순식간에 인터넷 공간을 지배하게 된 이유를 납득하게 해준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isi21



나폴레옹 대관식 패러디

편집 | 김남은 기자 kne81@donga.com 트위터 @sd_silver

KIA·롯데 ‘6월의 도약’ 자신 왜?

KIA 한기주 재활 끝 내달 1군 전망
선발 10승·마무리 20세이브 가능

장원준 5월말 3승...이재곤도 역투
롯데 투타 안정으로 상위권 자신감

KIA와 롯데는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언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지 모르는 ‘잠룡’이다. 그리고 그 힘의 원동력은 특별한 마운드에 있다. KIA는 선발진이 8개 구단 중 가장 많은 235이닝을 소화하며 안정적인 로테이션으로 힘을 비축하고 있다. 여기에 한기주의 복귀가 임박했다. 막강한 화력을 갖춘 롯데는 송승준, 사도스키에 이어 최근 장원준과 이재곤이 맹활약하며 투·타의 이상적인 조화를 꿈꾸고 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질지 모르는 10승 투수

치열한 페넌트레이스를 치르고 있는 감독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10승 혹은 20세이브가 가능한 투수가 뚝 떨어지면 어떤 기분일까? KIA가 페넌트레이스 최대 승부처 6월 무결점 마운드를 꿈꾼다. 2009년 팔꿈치 수술을 받고 1년 넘게 재활에 매달려온 한기주는 25일 대불대와 연습경기에 등판해 4이닝 동안 72개의 공을 던져 3일전(1자책)을 기록했다. 최고 구속은 144km였다. 대학팀과 경기였지만 한기주 역시 재활등판으로 구위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조범현 감독은 목동에서 “원광대와 연습경기에서 한 차례 더 던진 뒤 2군에서 2~3경기를 치러 몸과 마음이 모두 준비된다면 1군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6월 중순에 1군 등판이 가능한 페이스다. 조 감독은 이어 “그동안 꾸준히 선발로도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왔다. 보직은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LG 서동욱(오른쪽)이 25일 잠실 선전전 6회말 공격 때 1루에 있다 2루 도루를 시도하고 있다. 두산 유격수 이원석이 태그를 시도하고 있지만, 발이 빨랐다. 결과는 세이브. 박희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한기주는 팔꿈치 부상이 심각해지기 전인 2008년 3승 2패 26세이브 방어율 1.71을 기록한 특급 소방수였다. 누구도 성공적 복귀를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절정기 구위만 회복하면 선발로 10승, 마무리로 20세이브가 가능한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6월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KIA의 힘이다.

●장원준-이재곤의 쌍끌이 활약 빛나는 롯데

롯데의 5월 대반격에는 좌완 장원준과 사이드암 이재곤의 공이 컸다. 롯데 양승호 감독은 “사실 타선은 4월이나 5월이나 비슷하

다. 주자가 있을 때 응집력이 좀 향상됐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승률 6할을 훌쩍 넘긴 5월 상승세의 비결은 결국 마운드의 안정에서 기인함을 의미하는 얘기다.

실제로 롯데는 4월 한달간 외국인투수 사도스키의 부상 공백으로 선발진부터 빼져 있었다. 이 기간 도중 원투펀치 장원준~송승준의 분전이 돋보였는데 특히 장원준은 5월 들어서도 3승을 보며 팀 투수 중 승수와 방어율에서 1위를 달리며 에이스로 거듭났다. 장원준은 최근 3년 연속 두 자리 승수를 기록하면서도 2009년과 지난해에는 4점대의 방

어울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올해는 완공할만한 모습이다. 양 감독은 “올해는 투구시 팔을 최대한 타자쪽으로 끌고 나오면서 볼끝이 좋아졌고, 덕분에 경기 초반 실점이 줄었다”며 대견해했다. 이재곤의 역투도 빼놓을 수 없다. 4월 승리 없이 3패만 안았던 이재곤은 5월 들어 딱 투수로 변신했다. 17일 문학 SK전에서 선발 7이닝 2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거두고는 24일 사직 삼성전에선 데뷔 후 첫 세이브까지 올리는 전전후 활약을 펼쳤다.

사직 |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트위터 @jace2020

목동 | 이정호 기자 rushi@donga.com 트위터 @rushikh

■배영은의 덕아웃 이야기

한화 한상훈의 사부곡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장남은 서랍 깊은 곳에서 종이 봉지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봉지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눈물을 왈칵 쏟았다. 수심, 아니 수백 장의 야구장 입장권. 아들이 데뷔한 2003년부터 입대 직전인 2008년까지, 날짜도 장소도 다양했다. “그동안 ‘나 야구장 간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몇 번 관중석에서 발견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몰래 많이 왔다가셨을 줄은....” ‘널 이렇게 챙긴다’고 생색을 내지도, ‘내가 왔으니 잘 하라’고 부담을 주지도 않았다. 한화 한상훈(31)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아버지 고(故) 한용철 씨를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급성 백혈병이라고 했다. 공익근무 중이던 지난해 5월, 늘 건강하던 아버지가 몸살 기운이 있다며 동네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청천벽력같은 진단이 나왔다. 그 후 주어진 시간은 고작 6개월. 한 씨는 전역한 아들이 마무리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렵게 눈을 감았다. “귀국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빠, 저 다녀왔어요’ 했더니 ‘알았다’는 의미로 눈만 깜빡깜빡 하셨죠. 어쩔지 마음이 무거웠는데,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가혹한 2010년. 한 씨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4개월 전, 한상훈은 장인마저 아버지와 같은 병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장인이런도 늘 ‘우리 둘째 사위 힘내야 한다’며 남다른 사랑을 쏟아 주셨거든요. 두 분의 아버지를 떠나보내니 갑자기 멍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야구 잘하는 모습을 끝내 못 보여드렸던 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가끔 수훈선수 인터뷰를 할 때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어서 먹먹해져요.”

그런 한상훈도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2008년에 얻은 아들 예준에 이어 2011년 1월에 딸 예지가 태어난 것이다. 그는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겠다”고 말한다. “돌아가시기 직전야 아버지의 작은 몸을 처음으로 안아 봤어요.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지난해 처음 해봤고요. 왜 그동안 못하고 살았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아버지, 제 곁에 있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두 아이를 위해 열심히 야구할 거예요.”

스포츠1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3년 연속업계 판매 1위

원스톱
한방 발 미용청결제
(가려움, 수포(물집), 각질, 냄새)

★ 써보신분만 알지요?

각종 한방재료, 프로폴리스 함유
비파, 고삼, 창포, 자초, 삼주, 석산, 알로에 외 10여가지 한방 식물 함유

당신의 발은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제품 **One Stop**

(단 1회만 사용해도 4주후 건강한 발로 바뀝니다.)

가려움, 냄새, 물집(수포), 각질로 인해 고통받는 발! 먹어도 발라도 안되니 지긋지긋 하시다고요? 긁어도 긁어도 가려우시다고요? 씻어도 씻어도 냄새가 나신다고요? 물집(수포)으로 인해 각질이 많으시다고요? 사용해보지 않고는 믿기지 않는 놀라운 제품 원스톱! 1번(1시간) 사용으로 지긋지긋한 괴로움에서 해방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번(한시간)만** 사용하세요!

발 가려움, 냄새때문에 지긋지긋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씻어도 냄새나고 가려운 발을 깨끗하고 건강한 예쁜발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냄새제거는 보너스! 가려움증, 수포(물집), 냄새, 각질로 힘든가요? 원스톱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 1회(1시간) 사용하는 간편한 제품입니다. 발속에 숨어있던 지긋지긋한 괴로움 확 날려 버리고 건강한 축복한 윤기나는 발로 시원한 봄·여름 되세요.

당신의 발톱은?

라파엘 발톱 패치
(발톱미용청결제)

프로폴리스, 석산, 마치한, 비파, 목향, 유황, 창술, 금은화

당신의 발톱은?

토비의 행복 스토리

토비는 못생긴 자신의 모습에 너무 슬펐어요. 토비가 패치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토비는 패치 때문에 예쁘게 변한 자신의 모습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5일에 1번씩! 발톱에 붙여 주시면 고질적인 발톱이 예쁜 발톱으로 탄생 됩니다.

발톱이 부서리시나요? 어떻게 변색 되셨다고요? 도무지 두꺼워 자를수가 없으시다고요? **발톱변형, 변색, 부서러짐으로 먹고, 발라도 안되니 고민하는 분들께 건강하고 깨끗한 분홍빛 발톱으로 다시 자랄 수 있게 라파엘 발톱패치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희한한 제품이라 많은 고객님들의 뜨거운 찬사속에 라파엘 발톱패치가 새 발톱을 선물하는 행복지킴이가 되었습니다.

라파엘 발톱 패치는 특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건강하고, 깨끗한 새 발톱이 탄생되는 외용제입니다. 오래도록 고질적이었던 발톱이 예쁜 발톱으로 새로워 집니다.

★제형사태 후기모집 신세계 5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홈페이지 참조)

www.uposemall.kr

1주|유포스엘라젠 1588-5467

055-314-5690~3/070-8803-5691/070-8810-5690

농협 355-0002-160893 (주)유포스엘라젠

국민 842401-01-422516 (주)유포스엘라젠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FDA등록 · 상표출원 · 현대해상 3억 생산물 책임 보험 가입

www.upose.kr